



순창발효커피가 인터넷 쇼핑몰 쿠팡 입점을 확정하는 등 전국적 유통망 확대에 나서 순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순창군, 발효커피 확대 '시동'

한옥마을 '리던'에 이어 인터넷쇼핑몰 '쿠팡'에서도 판매 확정

순창발효커피가 인터넷 쇼핑몰 쿠팡 입점을 확정하는 등 전국적 유통망 확대에 나서 순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군은 그동안 전주 한옥마을 발효전문점 리던에서만 판매되던 발효커피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쿠팡을 통해 판매하기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광주대구가간 양방향 강천산휴게소를 통해 이번주부터 드립커피백도 판매에 나서는 등 유통망 확대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선상태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상품화에 성공한 발효커피 '순창발효커피'는 2년간 커피 발효기술

연구 끝에 개발한 상품이다. 수백 종의 발효 미생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최종 유산균과 고초균 2개 발효미생물을 최종 적용해 만들었으며 맛과 풍미가 우수하고 발효의 깊은 맛을 느낄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커피 자체가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발효커피는 콜로로제닌산 등 기능성 물질을 다량함유하고 항당뇨 효과도 더 높은 특징이 있어 고품질 프리미엄커피 특색시장 공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원두와 드립백으로

출시해 리던을 중심으로 판매에 들어가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순창군내 커피전문점 진출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발효커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발효미생물산업 관계자는 "발효커피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통망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계적 식품인 커피에 가장 한국적 발효기술을 더한 일류상품인 만큼 순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특산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철 기자

순창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사업 2억원 투자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군은 올해 전문 자격증반 교육, 맞춤형 능력개발교육,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에 2억여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사업은 자격증 취득반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SNS 마케팅 지도사, 스피치지도사, 글삭기 지게차 면허반 3개 과정으로 글삭기 지게차 면허반은 관련업무 종사자로 대상을 특정했다. 6월부터 7월까지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신청자 65명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가량 교육이 진행된다.

SNS 마케팅 지도사반은 모바일 마케팅, 네이버 마케팅, 뉴스마케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5회 진행된다.

최근 마케팅 환경 변화로 인해 SNS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 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피치지도사 반은 효과적인 스피치 생활과, 인간관계론, 회의진행요령 등을 내용으로 15회가 진행될 계획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물론 민원인 응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종강비면허반은 화원 위탁교육으로 안전건설과 등 종장비를 활용하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돼 실무 능력을 기워줄 계획이다.

전문 자격증반 이외에도 군은 신규 임용공무원, 핵심인력 등 계층별 맞춤형 능력개발 등 3개 교육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또 국가예산확보 전략 등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특강도 4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앙과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에도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에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록 행정과장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왕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아토피 케어용품 만들기 체험 성료

임실군, 환자·가족 대상으로 열어

아토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실군이 천연 케어용품 만들기 체험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최근 생활환경과 식생활 변화로 아토피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이해와 예방관리를 위해 지난달 30일, 4월4일 이틀 간 아토피 피질환자 및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군의료원에서 진행한 체험교실은 김해자 한국아로마테라피 인강학회 강사를 초청해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피부 보습제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지난해 총 4회 교육을 실시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올해도 알찬 내용과 실습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군은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검사 및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연간 5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아토피상담실을 통해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의 질환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아 102명을 등록해 보습제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아동의 피부 건강관리법을 바로 알고 천연제품을 이용한 수제품을 활용해 아토피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40-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는 5일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위한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정봉주 부의장 위원으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3명(강용신, 장화영, 김진규)으로 구성되었다.

순창군은 결산감사 완료 후 결산감사위원장이 작성한 결산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면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임시회에서는 신정아 의원의 대표안목으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심각한 권한 배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 노력을 촉구하는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순창=이왕철 기자

남원 농어촌공 운리위 구성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청렴한 기업문화 내재화와 윤리경영 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7년 지사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사장을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을 위원을 두어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및 윤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패예방시스템 운영강화를 위해 KRC청렴 신호등 운영, 청렴문화 알리기 서비스 강화, 청탁금지법 전문상담 창구(Help Desk) 운영,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등 선물반송센터 운영, 공사 인터넷 부패게시판 리얼 스토리 운영, 부패방지 및 익명신고 시스템 KRC 청렴신문고 운영,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문화 확산에 전 직원이 노력하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복숭아씨살이쫄벌' 예방 강화

임실군은 '복숭아씨살이쫄벌' 성충의 발생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매설과 복숭아 등 해과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복숭아씨살이쫄벌'은 과실속 씨방을 갉아 먹으며 성장해 수확기 무렵 과피가 갈색으로 합몰돼 80% 이상 낙과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2013년 전국 매실 주산단지에 발생해 무려 200ha 이상의 과원에 피해를 입혔으며 예찰 및 방제가 소홀할 경우 농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남원시는 관내 전통시장 3곳에 총 1억8천만원을 들여 소방시설 교체 및 정비, 공공화장실 노후시설물 보수, 다목적광장 설치 등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설 전통시장은 남원 스프링클러 배관 철거 및 교체 등의 소방시설 교체공사 추진으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조기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읍남 전통시장은 드레인밸브 교체와 배관·배선 및 감지기 설치 등의 소방시설 정비사업과 공공화장실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편의시설 등을 개선한다.

인원 전통시장은 상인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비가림시설과 유류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광장 설치하여 고객 편의를 위한 야외쉼터와 이동 판매대를 활용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소방서,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청명·한식 기간인 4일부터 5일까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원 뱀사골 일원과 순창 강천산 등산로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활동 인구가 급증하여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각심을 깨우고자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행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산불예방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배포, 논·밭두렁 및 잡풀 무단 소각행위 금지 등이다.

이는 청명·한식 기간에 산행 증가,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가 원인으로 꼽혔으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유영철 기자